



**난타전** 전국체전 2일째인 7일 경남 진주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복싱 대학부 웰터급(69kg) 예선전에서 광주대표 김춘식(호남대·오른쪽)과 인천대표 이종엽(한국체대)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김춘식이 6-2로 판정승했다. /진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여대 선후배 양궁 금셋 합작

〈기보배·안세진〉



**광주 정구 김이주-김지연 금빛 호흡**  
**전남 수영 정다래·유도 이혜인 우승**

**제 91회 전국체전** 광주 안세진(광주여대)이 양궁 2관왕에 올랐다. 전남의 사이클 금빛질주가 계속됐다. 안세진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이틀째인 일 양궁 여자부 60·70m에서 연거푸 금빛과 녀를 명종시키며 2관왕에 등극했다. '신궁' 기보배(광주시청)는 여자 일반부 60m 우승으로 메달 사냥을 시작했다. 남자 일반부 임지완(상무)은 70m에서 은메달을 보냈다. 정구의 김이주·김지연(동신여고)은 여고 복식에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여고부 -46kg급과 남대부 -54kg에서 각각 김보람(광주체고)과 김시상(조선대)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이 각각 두 개씩 나왔다.

전남대표들도 선전했다. 수영 국가대표 정다래(전남연맹)가 여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 가장 먼저 결승점을 찍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사이클의 금빛질주도 이어졌다. 여고부 20km포인트트레이스에 출전한 최영은·최은진(전남미용고)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양궁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순천여고 김민정이 팀 동료 한경희를 꺾고 60m에서 금메달을 썼다. 태권도 여자부 -49kg의 박명숙(경희대)과 유도 여고부 -57kg 이혜인(여수정보고)도 금메달리스트에 합류했다. 남자 일반부 복식에서 조건우와 호흡을 맞춘 '금빛링크' 이용대(삼성전기)는 동메달

을 확보하며 순항했다. 단체종목들의 선전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예선탈락으로 부진했던 광양여고가 1회전에서 부산 대표를 3-1로 꺾고 승리를 거뒀다. 세락타크로에선 한국향만물류고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팀 창단 이후 첫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편, 축구 승부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광양제철고와 광주 금호고는 8강에서 만나게 됐다. 승부조작 파문으로 감독이 공석인 광양제철고는 대전을 2-1로 제압했다. 금호고는 충남을 상대로 4-0의 완승을 거뒀다. 양팀은 9일 오전 11시30분 4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진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오픈 첫날 강성훈 선두·양용은 하위권

강성훈(23·신한금융그룹)이 코오롱 제53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첫날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강성훈은 7일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파71·721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아냈다. 지난 4월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유진투자증권오픈에서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을 차지했던 강성훈은 일몰로 인해 60여명의 선수가 경기를 끝내지 못했지만 로널드 하비(캐나다) 등과 공동 선두에 오르며 시즌

두번째 우승과 함께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의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도 13번홀까지 4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한국오픈에 3년만에 출전한 양용은(38)은 3오버파 74타를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0번홀에서 시작한 양용은은 11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이 물에 빠지는 바람에 한개번에 3타를 잃은 것이 아쉬웠다. /연남스

### U-17월드컵 우승주역 백은미·심단비 체전 무대에서 광양여고 정상 이끈다

펜싱스타 송중훈 동메달 만족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청소년 스타들이 전국체전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U-17 월드컵 우승컵을 안고 돌아온 광양여고의 백은미(2년)·심단비(3년)가 귀국 후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함안스포츠타운축구장에서 열린 광양여고와 부산의 일로시오고의 여고부 예선 경기, 지난달 끝난 U-17 월드컵에서 수비수로 맹활약했던 백은미와 대회 예선에서 골문을 책임지며 한국의 본선 진출을 이끌었던 심단비도 광양여고 유니폼을 입고 선수단과 함께 했다. 심단비는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벤치를 지켰지만 백은미는 선발로 출전해 0-1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렸다. 국가대표에서 수비수 임무를 맡았던 백은미는 본래의 역할이었던 공격수로 돌아왔다. 왼쪽 날개로 출격하던 백은미는 전반 30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트래킹을 한 뒤 슈팅을 날리며 공격 본능을 과시했다. 백은미는 "대표팀에서 원래 후보였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많은 경험을 하고 왔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기억받고 싶다. 광양여고가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욕심을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경기에 출전이 예고된 심단비는 "부상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서 뛰지 못했는데 귀국 후 많은 주목을 받아 어색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직접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여고 백은미(왼쪽)·심단비.

광양여고는 9일 오전 11시30분 광주 운남고를 꺾고 8강에 진출한 경기 오산고와 맞붙는다. 세계청소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중훈(전남공고 2년)도 남고부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했다. 송중훈은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회 청소년 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주인공이다. 예선 풀리그에서 5전 전패를 하며 꼴찌로 토너먼트에 출전했지만 기적 같은 연승행진으로 금메달까지 거머쥐었던 극적인 우승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첫 대회였던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 대표와 격돌한 준결승에서 막판 아쉬운 미스가 나오면서 14-15로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송중훈은 9일 사브르 단체전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치 먹으러 F1 오세요

광주·전남선수단 고향 홍보

광주와 전남이 '김치'로 맛의 고향으로서의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제 9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19개 시·도는 주경기장인 진주종합경기장에 홍보부스를 설치, 지역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는 홍보부스 외에 23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김치문화축제 홍보부스까지 별도로 설치했다. 주먹밥과 함께 배추값 폭등으로 '금(金)치'가 된 김치를 시식할 수 있도록 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관계자는 "준비해온 물량이 일제감치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판매 요청도 쇄도하는 등 광주 김치에 많은 관심이

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김치로 타 시·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자릿수 순위 진입에 도전하는 전남은 이번 체전을 통해 오는 22~24일 영암에서 열리는 F1 홍보에도 한창이다. 7개 시·도와 대한축구협회 등에 티켓 구매 의사를 확인한 전남은 김치를 담례품으로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도체육회 서정복 사무처장은 "직접 준비한 김치를 선물해 F1 홍보도 하고 전남의 맛까지 동시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 전남의 환경에서 자란 배추와 야채 등으로 직접 담은 김치는 배추값 폭등과 맞물려 큰 인기를 누렸다는 후문이 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